제로원의 원리와 제1복, 참여

(골3:1~4)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오늘부터 이번 주간동안에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눈 내용을 제로원의 원리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제로원의 원리와 제1복,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제로원이라는 것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자면 컴퓨터의 기본적인 인식 가능성의 원립니다. 컴퓨터가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제로원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화면에 아름다운 겨울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 컴퓨터를 멈추고 컴퓨터를 다 뜯어보면 그 겨울 산에 눈이 덮이고 산 아래는 매화가 피어서 눈꽃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모양이 0와 1의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0와 1의 기호를 가지고 조합을 만듭니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선을 두 개씩 붙인 것을 비트라고 부르지요. 이 비트를 8개를 모아서 바이트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예를 들어 500메가바이트다, 또는 70킬로바이트다 라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설교방송을 하고 나면 70메가바이트 정도의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 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0과 1을 묶은 비트를 여덟 개로 조합을 한 것이 바이트지요. 여덟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빨간 색을 나타내려면 010101 이것을 전기 신호로 꺼짐과 켜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01,11,00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표현하고 노란색은 00,11,10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모니터로 나타내주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로 원(0,1)이라고 하는 두 숫자의 조합만으로 이 컴퓨터는 마술처럼 못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부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0,1 이 두 숫자를 이용해서 온갖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로 원이라는 게 숫자로는 0,1인데 컴퓨터로는 꺼짐과 켜짐, 제로는 꺼지는 것이고 1은 켜지는 것으로 바꾸어서 전기신호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의 스위치에 보면 꼭지달린 사과 모양의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꼭지가 1이고 둥근

게 제로라는 뜻입니다. 끄고 켜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은 꺼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참여**, 두 번째 복 **관찰**, 세 번째 복 **액션**, 이 세 개의 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면서 관계하게 되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복음으로 메워 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삼중축복만 있으면…

그런데 이 삼중축복이 오직 제로원의 원리만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까? 제로원의 원리로 나는 꺼지면 돼요. 스위치를 내리세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에서 스위치를 내리세요. 그러면 참여의 복과 관찰의 복과 액션의 복, 이 세 가지 복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그냥 내 삶은 다 복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제로원의 원리를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자, 그러면 이러한 제로원의 원리와 제1복인 참여의 복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오늘 한 번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번 본격적으로 함께 나눠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꺼짐과 켜짐의 제로원의 원리로 볼 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해야지 살아갑니다. 가만히 묶어 둘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보며 내 발을 보며 내 머리를 보며 내 옆구리를 보며 내 살갗을 보면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죽었다고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내 모습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동일시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스위치가 꺼진다는 것이에요. 땅에 대해서 스위치가 꺼져서 가정문제에 대해서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고 직장문제에 대해서 스위치가 꺼지는 것이고 배우자와 자녀관계, 내 건강문제 돈 문제 등 하여간 모든 것이 이 땅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에든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스위치가 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딱 보면서 자식이 또 못된 짓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혔다' 그러니까, 손댈 수가 없지요,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기 때문

에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답답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가만히 있으라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있는데…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죽음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 대해 꺼졌습니다. 스위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손을 움직일 수도 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느낌도 감각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죽은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심을 받아서 내 활동영역이 바뀌어 버립니다. 나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활동영역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위로 바뀌어 버려요.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다고 했지요? 공중에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나라는 인격이 공중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몸에 묶여가지고 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오감관에 반응합니다. 그렇지요? 눈으로 자식을 보며 반응합니다. 귀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들으며 반응합니다. 또 몸으로 느끼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몸으로 연관되어진 이 세상 전체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자마자 공중에 있던 내 마음이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해방되어서 위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는 어떤 위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 활동장소가 하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일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활동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조합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을 찾는 게 활동의 내용이 됩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는 스위치가 꺼졌는데 하늘에서 내가 활동하도록 스위치가 켜진 것이에요. 이게 제로원(0,1)입니다. 나의 활동이 몸으로 엮여져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꺼졌다, 그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승천하게 됨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내 마음이 활동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활동해야 될 장소가 하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뭐냐? 찾는 겁니다. 뭘 찾는 겁니까? 숨겨져 있는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생명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생명을 찾는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마음이 몸에 묶여서 몸에 연관된 이 땅의 삶을 반응하며 뛰어들어서, 이 세상에 참여하며 끼어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도 한 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찾는 겁니다.

생명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명은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조금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다시 말하면 '카메라의 생명은 렌즈이다' 카메라가 카메라 되려면 렌즈가 생명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술가의 생명은 창작이다' 창의성이 없는 예술가 모방만 한다, 표절만 한다, 이건 예술가가 아니죠.
예술가로서의 생명이 죽은 것이죠,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끝난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사업가의 생명은 뭡니까? 이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 성 과부인 어머니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왜 외아들이 생명입니까? 어머니를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게 하는 힘이니까…
외아들이 있어서 이 과부가 살아서 활동하고 숨 쉴 수 있으니까…
사업가의 생명이 왜 이윤입니까? 이윤 때문에 이윤을 찾아내려고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예술가에게 왜 창의성이 생명입니까? 창작을 위해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하게 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역시 자식입니까? 여러분도 역시 돈입니까? 돈 때문에 몸살이 나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나가서 활동을 합니까?
가정입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가정이 생명이지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생명입니다.

자, 그 생명이 항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창작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왜? 숨겨져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창조적인 작품이 숨겨져 있어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숨겨진 생명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카메라 회사의 생명입니까? 어떻게 더 좋은 렌즈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렌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손에 못 박힌 사실을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 내 손에 못이 박혔네, 내 발에 못 박혔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스위치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활동이 이제 위인 천국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의 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생명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것.
근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이 뭐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이 사업가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은 이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술가세요?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창작품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아들을 둔 어머니세요? 더 이상 외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동일시되는 연합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활동의 장소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창작활동이 있는 이 지상, 이윤이 얻어져야 되는 이 지상, 외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아닙니다. 연예인 같으면 내 몸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동일시되어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생명이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까지 돈을 찾듯이, 이제까지 자식의 성공을 찾듯이, 이제껏 외모를 찾듯이, 이제껏 창작품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되는 내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너무 싱거워서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부성(父性)이라고 그러지요? 나를 향해 아버지 되심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새삼스럽게 찾는다는 얘길까?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야 되요. 마치 좋은 렌즈라고 하는 게, 지금 상태의 렌즈를 보면서 '아, 이 상태의 요런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렌즈',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렌즈를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만든 작품을 자꾸 깨부숩니다. 기껏 만들어서…
뭔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야 돼요. 마치 스펀지가 물에 대면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내 마음이 그걸 알아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이론적으로 말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사실을 나 같은 죄인의 자식을 내가 못 버리는데, 내 자식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육체의 죄를 정하사 저주 받게 하시고 심판 받게 하셨다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하반부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외아들 되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비참한 형상으로 저주 받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이 똑같은 죄인인 아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를 버리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내 손가락 하나 자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높이에 도달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활동장소로의 이 땅에 대해서 스위치가 꺼져버린 사람들이 하늘에서 스위치가 켜지면 바빠요. 이제부터 바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아버지 되심의 사랑을 찾아내는 데에 60년이 걸리면 다 찾겠습니까, 70년이 걸리면 다 찾겠습니까?

미국에서 시간 관리하는 분들이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의 평생이 70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다 무얼 하며 사느냐 하면, 잠자는 데 26년, 정확하진 않아요, 한 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16년, 심지어는 전화 받는 데에 몇 년, 이렇게 다 쓰고 미국이라서 그런지 예배드리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22개월이라고 했습니다. 70년 중에서 22개월…
70년 사는 사람이 22개월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고 먹고 다른 데 시간을 다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월 예배드리면서 예수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알겠습니까?
결혼해서 30년 40년을 살아도 아내의 속, 남편의 속을 다 모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20년 30년 길러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도 그 자식의 속을 모르는 겁니다. 자라고 있는 동안 장가가기 전까지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며 키우는 아들과 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년을 살면 바쁜 거예요. 70년을 다 들인다고 해도 위의 것을 찾아내는 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내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난 죽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난 죽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업가에게 이윤이 생명인 것처럼 나인성 과부에게 외아들이 생명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로서의 나에 대한 사랑이 찾아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칠십 평생을 다 들인다고 해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위의 것을 찾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찾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진짜 지식에서부터 내 마음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랑 속에서 잠 잘 수 있어요. 주님처럼…, 현상적으로…

지독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요. 베드로가 내일 참수형을 당하게 결정되었는데 그냥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래도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깊이깊이 잠들 수가 있어요.
카타콤에서 250년 동안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위의 것을…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찾는다,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물건 팔아서 얼마의 이윤을 남기자, 장사하는 사람도 내가 이 물건 매출을 얼마 올리면 얼마의 이윤이 떨어진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창작활동도 마찬가집니다. 공예를 하든지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창작활동이라는 게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잡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명일 때, 자식이 눈에 보이니까 '이 자식을 서울대에 보내야 되겠다'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찾는다고 할 때 어떻게 찾아요?
이게 찾는 거예요.
황정민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 분이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을 말한 것이 한 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영화에서 남우주연의 역할을 잘 해 냈습니다. 상 받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감독, 영화 시나리오, 촬영기사 등 모든 스탭과 함께 출연한 배우들 모두 훌륭했고 잘 차려진 밥상이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밥 먹었는데 그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겸손한 말씀이지요.

잔치 벌어졌을 때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입이 하나 더 는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것을 찾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찾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부활시키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십니다. 이 우주, 목성 화성 은하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밥숟가락을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내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느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에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찾고 뒤지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생명,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되심, 창조주 되심, 이것을 내 마음이 마구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스테반이 하늘이 열려서 본 것도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언제나 내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 모든 것들이 승천하신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우리들 마음이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곧바로 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내 마음에 다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동일하게 느끼게 해 주세요."

자, 이 기도가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동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 마음이 자꾸 딸려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라'는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날 집에 누워있는데 위층에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닙니다. 쿵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귀로 들려옵니다. 자, 몸으로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귀로 소음이 들려오게 되면 마음이 소음에 붙으려고 합니다. 붙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신경질, 불만, 짜증 이렇게 되죠. 이게 붙기 전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붙으려고 할 때,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 무슨 얘깁니까? 밝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층간 소음,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내 몸의 귀를 통하여 내 마음이 이제 그것에 반응해 버리면 마음이 흐려져 버립니다. 흐려지면 마음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일단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보입니다.
길을 가는 여자를 보면서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미 십자가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동일시하는 기도를 했어도 일어나서 살다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사업장에 나가서 돈이 다 떨려 나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귀로 그 상황이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마음에 안 보여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죽은 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오감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재료에서 마음이 붙기 이전에 십자가를 밝히 봐야 됩니다. 정 보기가 힘들면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이 세상의 일과 환경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막 뚫고 들어옵니다. 뚫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막 휘감겨져 버리면 우울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두려워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차를 세워두고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것을 생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럼 땅을 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관찰의 복과 액션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켜지시는 겁니다. 나의 활동장소가 하늘로 바뀌게 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활동장소로 켜지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활용(?)한다고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죄인 됨을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사해 져요. 그러나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몸의 오감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뒤흔들려는 재료들이 들어옵니다. 그 재료들이 들어올 때에 반응하기 이전에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기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일 겁니다. 밝히 안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밝히 보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하면 이제 내 마음이 하늘로 활동장소를 옮기게 되고 마음껏 원대로 활동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사랑을 다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이제 이 땅에서 아쉬운 것들을 다 하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이루어서 아쉽고, 이미 우리는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못 이루어서 아쉬운 것이 있잖아요. 없어서 께름칙한 게 있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느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게 내 생명이에요- 그것을 많이많이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 예수님이 느끼시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주님이 느끼는 그 분량까지 찾아내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관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액션을 취해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로원의 원리, 오늘부터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꺼지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는 원리를 여러분 아셨죠?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거예요.
밝히 안 보여요. 한 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밝히 안 보이고 자꾸 가려져요. 이 문제 저 문제 눈으로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밝히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밝히 보다보면 어느덧 '내가 하늘에 들어 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것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많이많이 찾으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풍랑에서 잠자고 그래서 '우겨 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몸은 우겨 쌈을 당했는데 내 마음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로원의 원리로 진정한 참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가 날로 날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일에서 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몸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스위치가 꺼지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라간 하늘에서 활발하게 켜져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생명,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복된 참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